

‘제주 등명대’ 첫 ‘제주도 등록문화재’ 된다

시·도 등록문화재 도입에
제주도 등록문화재 시행
관음사·금봉사 불화 포함
3건 도등록문화재로 예고
제주 등명대는 복촌 등 6기



‘제주 등명대’로 등록 예고된 6기 중 하나인 복촌 등명대.

‘제주 등명대’ 등 3건이 첫 ‘제주도 등록문화재’로 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 등명대(燈明臺)’, ‘제주 관음사 후불도’, ‘제주 금봉사 오백나한도’ 등 3건의 제주근대문화유산을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고는 2019년 12월 문화재청의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개정되면서 근·현대 제주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등록문화재로 별도로 추진됐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

리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 등명대’는 현대식 등대가 도입되기 전 제주도 근해에 축조된 옛 등대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도대불’로도 불린다. 제주도는 이 중에서 원형성을 간직한 제주시 소재 4기(고산리, 김녕리, 복촌리, 우도 영일동)와 서귀포시 소재 2기(대포동, 보목동) 등 총 6기를 등록문화재로

예고했다.

제주도는 “제주 등명대는 현재 제주에만 남아있는 유산으로 희소성을 지님과 동시에 제주 현무암을 응용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축조되는 등 근·현대시기 어업문화와 해양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해양문화자원으로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했다.

‘제주 관음사 후불도’는 1940년

10월 17일 근현대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화승(畫僧)인 금음 일섭 스님이 관음사 성내포교당에 봉안하기 위해 그린 불화다. 화기(畫記)와 일섭 스님의 자필 기록인 ‘연보(年譜)’에는 이 불화를 그리기 위해 제주에 입도한 시기, 함께 참여한 화승, 작업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고 해당 불화의 초본이 현재 김제 부용사에 남아 있는 등 작품성을 갖춘 근대기 불화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 금봉사 오백나한도’는 정확한 제작 연대와 제작자 등은 알 수 없지만, 20세기 전반 근대기의 특징적인 제작 기법과 화풍을 지닌 불화로 평가받는다. 제주도는 “국내 현존하는 불화 가운데 한 폭의 화면에 오백나한을 그린 희소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근대불교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했다.

이들 3건은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오른쪽이 ejoh@ihalla.com](mailto:ejoh@ihalla.com)

꿈과 현실 오가는 물방울의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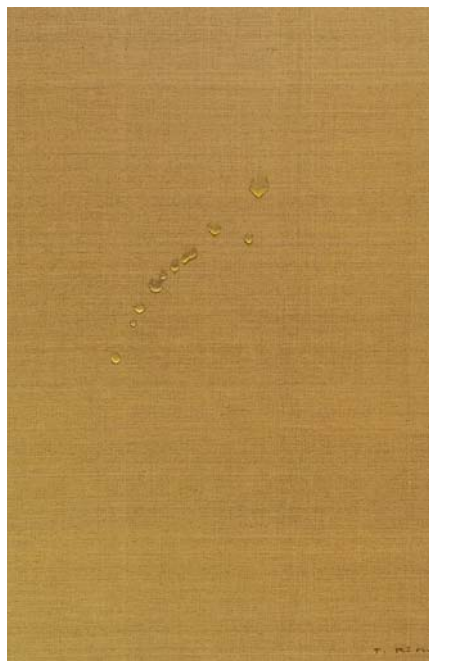
김창열미술관 소장품전
‘회귀’ ‘물방울’ 미공개작

물방울이어도 모두 같은 물방울이 아니다. 형태와 색이 저마다 다르다. 저 하늘의 별들이 각기 다른 빛깔로 반짝이듯 물방울도 그 투명함 속에 서로 다른 ‘무늬’를 그려낸다. 김창열(1929~2021)의 물방울이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있는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물방울의 다채로움을 품은 작품들로 코로나19 시국을 건너는 중인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꿈을 품은 물방울’전이다.

이번 전시는 김창열미술관의 새로운 소장품으로 꾸렸다. 2016년 개관 이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16점을 골라 미술관 2·3전시실에서 나눠 선보이고 있다.

이들 작품은 1975년부터 1997년까지 제작된 것들로 ‘물방울’이란 제목을 단 작품이 7점이고 ‘회귀’ 연작이 9점이다. ‘물방울’은 비교적 초기작에 속하는 1975년 작품이 들어 있고, ‘회귀’는 본격적으로 천자문을



김창열의 ‘물방울’ (1975).

배경으로 넣었던 1986년보다 이른 시기인 1983년 작품도 나왔다. 마포에 종이, 유채, 한지, 먹, 아크릴 등 여러 재료를 이용해 형상화한 물방울로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듯한 세계로 이끈다.

전시는 8월 29일까지 계속된다. 코로나19에 따라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전신회기자 sunny@ihalla.com](mailto:sunny@ihalla.com)

여름철 주말마다 제주 일노래와 함께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향사당·소암기념관서
제주 소리꾼 20회 공연

이번 상설 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 방언, 풍습, 민속, 역사 등을 담고 있는 제주 민요 중에서 노동요를 중심으로 공연을 펼치고 이를 제주 음악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상설 공연 기간에는 ‘해녀 노 젓는 소리’, ‘망건 짜는 소리’, ‘출 비는 소리’, ‘도깨질 소리’, ‘검질 때는 소리’, ‘뿔 후리는 소리’, ‘노영나영’,



지난해 고씨 주택에서 펼쳐진 제주 일노래 공연. 사진-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제공

‘영주심경가’ 등을 들을 수 있다. 출연진은 제주농요보존회, 이어도민속예술단, 젊은 소리꾼 김보람·부혜미 등으로 짜였다. 제주 심방 김영철의 축원 마당도 마련된다.

6월 5일~8월 21일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향사당에서 공연이 열린다. 7월 4일~8월 22일에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소암기념관 야외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고영림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은 “지난해 여름 네 번의 공연은 소박했으나 그 의미는 작지 않았다. 공연자들과 감상자들이 눈빛을 나누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추임새도 넣으면서 공감의 의미를 새롭게 세기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올해는 싱그러움 여름날의 오후 시간을 제주 일노래의 청량한 소리와 함께 누리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신회기자](mailto:jinseon@ihalla.com)

문화가 쏙지

제주 뮤지션 음반 제작 지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주음악창작소 사업으로 제주 지역 뮤지션 음반 제작과 후속 프로모션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서는 경력 뮤지션 3팀, 신진 뮤지션 3팀을 선정해 자유 주제와 제주도 옴을 주제로 한 곡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원 장르는 제한이 없다. 사업 기간 동안 경력 뮤지션은 1000만원, 신진 뮤지션은 5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달 18일까지 온라인 e나라도움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766-0706.

예술치유클리닉 추가 공모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공간 이어의 ‘2021 예술치유클리닉’ 입주 프로그램인 ‘예술치유클릭티브 이아로(路)’에 참여할 시각예술인을 추가 공모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시각예술인(개인 또는 2인 프로젝트 팀)으로 ‘치유’를 주제로 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가의 치유 활동을 돕는다. 선정 예술인에게 창작스튜디오와 지원금을 제공하고 연말 예술공간 이아 기획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접수 기간은 이달 9일까지. 문의 800-9341.

여성영화제 요망지니 모집

제주여성회가 9월 제주여성영화제를 앞두고 자원활동가 ‘요망지니’를 모집하고 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하는 요망지니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사전 홍보, 영화제 스태프, 제주씨네페미학교 아카데미 프로그램 스태프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7일까지 이뤄진다. 온라인 링크(<https://bit.ly/22JJWFF>)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여성회 홈페이지 참고. 문의 070-4047-9130.

누군가의 김택수, 추억 속의 김택수

예술공간 오이 창작극
‘... 김택수는 있다’ 공연
6월 5-27일 토·일요일

오이의 서른세 번째 연극으로 전혁준 작가가 쓴 창작극을 김소여의 연출로 4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무대다.

이 작품은 안치실에 놓인 신원 불명의 익사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극 중 형사는 증거물 가운데 메모지에 적힌 의문의 전화번호 3개를 단서로 범인을 찾

아 나선다. 세 명의 용의자가 한곳에 모여 그날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꺼내면서 본격적으로 극이 전개된다. 누군가의 김택수, 추억 속의 김택수를 떠올릴 수 있는 러닝타임 80분의 코미디극이다. 부지원, 홍서해, 김지은, 김수민이 출연한다.

‘누구에게나 김택수는 있다’는 15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공연 일정은 6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3시와 7시 예술공간 오이(제주시

연북로 66, 예코파인 지하1층). 관람료는 1만3000원(예매 1만2000원). 인터넷(네이버)이나 예약 문자(010-9687-0919)를 이용하면 된다.

예술공간 오이는 제주4·3, 위안부 문제, 청년 실업 등을 다룬 창작극을 중심으로 제주 연극의 활로를 꾸준히 모색해 온 ‘젊은 극단’이다. 이들은 이번 공연을 알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왜 연극을 하는가?”란 대표의 글을 덧붙였다. [전신회기자](mailto:jinseon@ihalla.com)

진 축 금

해병대 소장

해병대 소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영수
(서귀포시 강정동 한양조씨)

사촌일동

(조성암·영길·영규·두성·두진·최태석)

취 축 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배문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시지회 회원일동

위 축 축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환경공학박사)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탄소중립 국가조성을 위해
새롭게 구성되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부 테러리 보호위원회 회원 일동